

제 19 장사도행전 Tape #8108

지난 주, 우리는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웅변적인 사역을 보았는데, 그가 에베소에 와서 주님께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회당에 있었으나, 그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과 성경구절들을 더 완전히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났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추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거기 있는 성도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아볼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거기서 그가 성경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옷지방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번역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믿은 이래 성령님을 받았는지[옛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의하면]를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헬라이어는 두 가지를 다 지원할 것입니다. 자, 킹 제임스 번역자들에 대해서 보면, 그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번역하고 있던 헬라이어 학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믿은 이래’라는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독립된 성령님의 침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은, 믿었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것이 왜 그들이 그 독특한 해석을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그들의 신학적인 위치를 지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구절은 회심과 별개의, 그리고 회심을 한 후 일어나는 성령님에 의한 능력 부여주심의 경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 장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에서(행 1:4),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인데, 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는 너희가 나로부터 들었던 것이다, 요한은 진실로 회개를 위해 물로 침례를 베풀었을 것이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가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 20:22 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 후의 일인데, 바로 뒤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성령님은 처음부터 항상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틀어 우리는 영으로 충만했던 자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구약시대에서 대언의 은사들과 다른 영의 은사들을 실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때에 관하여 말씀하셨기에, 너희는 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실제 이미 물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앞부분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이고, 또한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박해로 인해, 어떻게 유대로 퍼져갔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였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빌립이 행한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다는 빌립의 메시지에 대해 믿게 되었고, 마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지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표적이 따랐는데, 이는 그들이 전한 말씀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하나님에 의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고전 12:3).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말했으며, 거기에는 회심 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구애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내부 거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그 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일치시키시는 변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증인들은 전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만큼이나 땅 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위해 에베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믿는 자를 와서 보니, 그들이 그것들의 경험에 있어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마리아로 돌아가 보면(행 8:5-25),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설교했을 때,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들이 안수할 때 영이 각자에게 부여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고 있던 것을 모방하기 위해 그 능력을 [돈으로] 사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베드로가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들의 회심과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epi**[헬라어로서, 영어의 upon 과 같은 뜻의 용어, 역자주]의 경험, 즉 위에서 임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했고, 즉 그것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되었던 그 때(행 9:1-22),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그가 반응하여 이르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자, 그 분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대답하셨고, 이에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자, 성경구절[고전 12:3]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 회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회심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마스쿠스 길에서

있었던 경험의 결과로 눈이 멀어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거절하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에 대해 들었죠, 그러나 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온 자란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어 말하기를, 주님 확실하세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와서, 형제 바울이여! 당신이 시력을 되찾고,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해 주라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 라고 말하며, 그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은 그의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마스쿠스, 바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별개이고, 회심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은 이래 또는 당신들이 믿었을 때[이것은 정말 다를 것이 없음] 성령님을 받았는가? 라고 말한 이유는,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혹은 너희가 믿은 이래, 성령님을 받았는가? 라는 것이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는 미처 성령님의 선물을 받지 았더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번역에 따라, 당신은, 그가 했던 것처럼, 당신의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나중 어떤 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는가하면, 아마도 열정의 부족함을 관찰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의 부족과 열심의 부족과 정열의 부족 같은 것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영의 진짜 역동적인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따분한 그리스도인들일 뿐이고, 진짜 정열이 없으며, 진짜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마는 그것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영의 일들에, 주님의 일들을 위해 진짜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거기에 영적인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관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느냐? 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역동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일들 안에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열과 열심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뿐(Jesus only)’이라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께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 침례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함

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예수가 아들이고, 예수가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뿐’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라고 물으면, 그들은 어렵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했나요? 라고 물으면, 또한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들을지어다! 당신이 알지만, 그 분이 복화술자[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하여 말하는 자, 역자주]였나요? 그들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의 질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도록 사람을 침례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보통의 실행이었다는 것을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나요?)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리고, 물론 아블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완전히 그에게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4 절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하리라 하였으니 이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였거늘,” 혹은 메시아야, 예수님을 말합니다. **5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 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므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도 하고 대언도 하니,”** **7 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본래 성령님이 교회에 부어지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타언어로 말했고, 그들의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가 있었으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랴에 와서(행 10:23-48), 그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가이사랴에 있는 자들이 타언어로 말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님의 선물을 받도록 그들에게 손을 얹지만, 여기서는 타언어로 말을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반드시 특별한 어떤 것을 받고 있었다는 지시 같은 것이 반드시 있었다고 보며, 다른 한편으로 만약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지시하는 초자연적인 증명과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시몬은 그 능력을 살 마음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가 타언어로 말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경우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들의 경우, 베드로는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한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고전 12 장에서 단언한 것처럼, 은사의 다양성과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은사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하나의 양식으로 자신을 한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집에 두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때 당신은 압니다. 우리는 항상 아담한 상자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그 분은 한 특정한 방법에 제한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의 활동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삶에는 저런 방법으로 활동하실 것이라는 말이며, 하나님은 늘 특정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도, 어떤 자에게는 단지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들이 치료되었으나, 다른 자들은 그 분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므로 그들이 치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는 그 분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니,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특정한 방법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교단을 형성하고, 이것은 그 분이 행하신 방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가지는데, 이는 교회 정치에 있어 장로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고, 주교(또는 감독)와 등등을 가진 교회의 정치에 있어 감독 형태를 따르는 감독제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구별되는 특징별로 주변에 모이고, 우리의 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을 당신이 봅니다. 만약 그 분이 침을 뱉지 않고 당신의 눈 안에 진흙을 바르면,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진흙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이죠, 당신도 알지요? 우리는 ‘그 분이 나를 만진’ 그룹이고, 우리

는 ‘그 분이 나를 만지지 않은’ 그룹이다 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분은 일을 행하시는데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이나 길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다시 그들은 타언어로 말했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역시 대언도 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가끔 성령님을 받을 때, **glwssa**[헬라어로, 영어의 *tongue* 과 같은 용어, 역자주]라고 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이 은사를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성령님을 받는 표적이 대언의 은사였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여기 에베소에는 이 두 가지, 타언어로 말하는 것과 대언의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8 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들에 관한 것들을 논하고 권면하되,” 바울의 습관 속에는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거기서 그것들의 설교를 하고, 논쟁하고, 설득했습니다. **9 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신봉하고 있던 삶의 그 길을 말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논쟁하니라.”** 두란노란 사람은 철학자인데, 에베소에 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거기서 오전 11 시에서 오후 3 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 시까지는 두란노가 그의 학교, 거기에서 철학자로서 가르치고 있었고, 바울은 오전 11 시에 인계를 받아 오후 3 시까지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날조차도 세계의 한 쪽에서 그들은 오후 낮잠을 잡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상가 문을 닫는데, 그것은 대략 정오 시간이고, 다시 여는 오후 4 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약간 늦게까지 문을 열어 둡니다. 열기가 있는 시간 동안에 낮잠을 자는 것이니, 문화적인 한 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는, 당신이 알지만, 열기 때문에 오후 1 시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아침 1 시에 잠을 잔다는 말이 있어왔습니다. 저녁이나 열기가 가라앉은

오후에는 사회 활동 등을 하기가 훨씬 쉬웠으나, 낮의 열기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낮잠을 잤던 것입니다. 일종의 잠깐 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장막을 만드는 일로 그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 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쩌서 내가 그들 중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오히려 거기 있던 동안 그들이 나를 지원할 수 없었으므로, 내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수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지원했고, 이것을 다음 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오전 11 시까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인데, 그 후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기 위하여 집으로 가는 때, 바울의 제자들, 혹은 믿는 자들이 모이면, 오전 11 시에서 오후 3 시까지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다시 돌아가 사역에서 자기 스스로를 돕기 위해 장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10 절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매,” (그래서, 그가 회당을 떠난 후 2 년간을 에베소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약 3 년 가까이 됩니다.) **“아시아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는 그 지역의 중심으로, 여기로부터 서머나, 버가모, 계속해서 두아디라, 라오디게아등과 상업거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바쿠의 중심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거기에 소아시아 전 지역의 도처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흥미롭기에 충분한 바울의 2 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주님이 막으셨는데, 지금 그는 아시아 지방에 와 있고, 주님은 그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히에라폴리스를 통해서 아시아, 이 지역의 모든 곳에 널리 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그가 2 년 동안 거기에 있음으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장의 조금 뒤에 가보면,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는 이것을 보고,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장사가 위태롭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이 작은 은을 빚어 신과 여신 등을 만들어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라는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퍼집니다.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갈보리 채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나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 양 쪽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에서 나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황홀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서 운행하셨으나, 곧 제프 존슨이 다우니로 간 것처럼, 우리의 유대로 퍼져갔습니다. 마이크가 샌디에고로 간 것과 그렉 로리가 리버사이드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유대일 것으로 아는 주변의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사마리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빌 가라틴은 뉴욕으로 갔고, 죠 포치는 필라델피아로 갔으니, 우리는 퍼지기 시작한거죠. 스킵 하이작은 아버커크로 갔고, 존 칼슨은 오레곤의 애플게이트로, 웨인 테일러는 워싱턴의 시애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밤, 우리는

세계의 곳곳에서 복음전파를 수행하는 100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대륙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나간 과정을 보았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흥미롭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으로 그 도시를 가득 채웠으나, 핍박으로 인해 유대로 흩어졌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 있고, 도마는 인도로 갔으며, 그들은 세계 어디나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상 어디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임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일은, 안타깝게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마이크 메켄토시가 샌디에고로 갔는데, 그곳은 그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대지만, 마이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유대 땅인, 샌디에고의 다른 도시들로 가기 시작해서, 샌디에고 카운티 안에 21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유대에 도달했고, 다시 그의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했고, 지금 마이크는 국제적인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으며, 세계 어디나, 특히 멕시코에 집중하여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쥘 포치는 필라델피아로 돌아갔는데, 그곳은 우리의 사마리아이지만, 그에게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그는 필라델피아를 손대기 시작했고, 다른 갈보리 채플이, 마치 그의 유대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의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점점 그들의 사마리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제 쥘은 세계의 많은 부분들을 연결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보티카에 갔던 우리의 소년, 마이크 해리스는 거기서 선교사역을 세우려고 2년 동안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땅 끝 지역입니다마는, 마이크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보티카의 다른 지역들로 가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그들의 사마리아에 도달하는 것처럼 바자와 형거리에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는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보티카 주변의 작은 여러 마을을 열고는, 그들의 사마리아였던 형거리 속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교회가 땅 끝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의] 레드랜드에 있는 교회의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수보티카에서 들어온 젊은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 수보티카에서 온 이 교인들은 레드랜드에서 젊은이들과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토요일에 메시야를 기다리는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코니에서 웃음을 짓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예배 후에 그녀는 내게 와서, 척, 나는 헨리에요, 바자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서 왔습니다. 이 교회는 갈보리 채플 수보티카의 지교회 중에 하나예요, 당신도 아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여기에 보내셨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어디에서나 활동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퍼지게 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두루 퍼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중심이 되는 모든 장소에 그것은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기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가 그의 예루살렘이 되어 그의 유대와 그의 사마리아와 그의 땅 끝까지에 도달하여 개발되는 성장과 같은 이 지수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한 세대 안에 전 세상에 도달될 수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모든 장소는 그 유대에

도달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으나, 그것은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로, 버가모로 올라가고, 서머나로 넘어가고,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 주변, 사데와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역으로 퍼져갔고, 그 지점으로부터 그들의 유대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시아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모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 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기적을 행하신 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바울의 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도구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스릴이 있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신다니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원하셔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나는 얼마나 놀랍고 스릴이 있을까? 그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12 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자, 손수건이라는 단어는 물론 헬라어의 한글역입니다. 헬라어는 땀받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기억하겠지만,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곳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땀받이를 머리에 둘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을 다 끝나치면, 땀받이를 벗어 내던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집어, 갈라내고, 취하여, 병든 자에게 달려가 그 병든 자에게 그것을 얹어놓습니다.) **“앞**

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치료받아야 할 자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대기만 해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기적들이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수건 또는 땀받이와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가져갔죠.) **“악한 영들이 나가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양도함을 위한 접촉점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나에게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은 내가 그의 옷자락 끝을 만질 수 있는 순간에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나는 치료될 것이야! 내가 믿음을 양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활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그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에게 떨어지지만 하면 그들은 치료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활성화되어 그들의 믿음이 재빨라진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사람은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첫 번째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치료될 것이라 것을 아는 곳이 다시 한번 하나의 접촉점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인 믿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바울의 땀받이와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은 말하기를, 자, 바울에게서 이것을 가져왔네, 당신 알아? 라고 말하며, 그들 위에 그것을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오, 나는 알고 있소, 그들이 나에게 바울의 땀받이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내가 치료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땀받이가 그들에게 얹어질 때, 그들의 믿음은 활성화되었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하도록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활성화 되었을 때, 능동적인 믿음 속으로 발산됩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성경대학에 갔을 때, 켈소 글로버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흥미롭고 특이한 체질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매료되었는데, 그 분은 재미있는 분이었으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기도의 삶과 헌신을 배우기 위해 내가 그분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분은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부은 작은 의복들을 내보내는 일을 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그 기름을 부은 의복들을 얻으려고 방송국에 편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 개씩 꾸린 작은 의복 더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에 손을 얹었고, 그것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의복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그것들을 얻었을 것인데, 치료 등을 위해 그 위에 그것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곳에 그것들을 보냈는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의복들을 받았을 사람들로 부터 온 많은 편지들을 읽었지만, 그도 그 의복들을 받았던 몇 사람들의 편지를 방송국에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많은 가벼운 병들에서 나왔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편지는 특별히 흥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숙녀가 쓴 것으로, 내가 아주 뚜렷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녀는 기름을 부은 의복을 하나 받았습니 다. 그의 가족과 함께 그녀의 한 아들이 극장에 가는 도중에 저녁식사를 하러 집에 왔습니 다. 그가 믿는 자는 아니었으나, 식탁에 있는 그 의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엄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것은 기름을 부은 의복이란 다, 알겠니? 라고 대답하자, 그는 우스개 소리로, 내가 입어보아도 되죠? 라고 말하고는, 자켓으로 그것을 걸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갔고, 그들이 극장에 앉아 있다가, 그는 자기 아내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연기 냄새가 난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니 당신 미쳤소! 당신은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잖아요! 이미 냄새를 맡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신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단 말이에요! 라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기 냄새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아내는, 당신 미쳤군요! 냄새도 맡지 못하면서 왜 그래요! 라고 짜증스럽게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극장 앞쪽으로 내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극장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극장을 빠져 나가자마자, 불꽃이 터졌습니다. 그 뒤, 그녀는 다른 의복을 하나 더 보내달라고 말했으나, 그는 나에게, 그 하나를 보내주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에게서, 그들은 이 땀받이들과 앞치마들을 보내어, 병든 자에게 그것들을 얹어놓았습니다. 특별한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쫓겨 나갔습니 다.

13절 “그 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 에베소, 흥미로운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이교와 신비적 숭배가 많았던 그런 곳이고, 모든 종류의 마술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걸렸을 여러 다른 가벼운 병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모든 종류의 작은 양피지를 제조했습니다. 그들은 마술적인 종류에 몰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작은 양피지들이 악한 영들과 저 자연에 속한 것들을 내쫓고 수호하는 행운의 마법처럼 사람들에게 의해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는 수도사였던 이런 부랑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내쫓는다 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흉내 내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14 절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바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일곱이 있어

이들도 그와 같이 하니,” 15 절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간접[한 손을 건넌]의 관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직접의 관계에서 연습니다. 도리어 실체는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16 절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그들을 놀려 이기니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로 그 집에서 도망하매,” 17 절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경외함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라.” 18 절 “이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19 절 “또 신기한 술수를 이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적인 예술과 호기심 나는 예술을 말합니다.) “자기 책들을,” (마술의 책들입니다.) “다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태우니 그 값을 계산한즉 은화로 오만 개나 되더라.” 엄청난 금액입니다. 20 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가고 세력을 얻으니라.”

21 절 “이 일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세계의 심장에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기에, 로마에 복음을 가져가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데서 보면, 그들을 방문해서 상호 유익이 되도록 어떤 영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기를 열망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그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오순절의 절기를 위해 거기에 있기 원하고, 로마를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욕구는 채워졌으나, 그가 계획한 대로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대했던 것과 아주 다른 길로 해서 로마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몇 장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 절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테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그와 함께 사역을 하던 동료들입니다.)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더니,” 그는 거기서 약간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약 3년 정도를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23 절 “바로 그 때에 이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한 것인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그 길의 사람으로서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관련된 것은 그 길이었습니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은 동요도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 걸으므로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다른 것입니다.

24 절 “이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더니,” 이것은 그들이 다이아나의 작은 우상을 만들어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는 다이아나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다이아나는 라틴의 이름이며, 헬라의 이름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바빌론의 아스다룻과 동등한 것이었고, 혹은 섹스의 여신과 성적 재생산, 가슴이 풍만한 여인의 형상이나 우상으로 대표되었습니다. 가슴은 아이를 위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처음 몇 개월 동안 아이가 모유에 의해 유지되기에, 마치 그들이 생명의 원천처럼 여성의 가슴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 안 거기에 놓인 다이아나의 우상은 검은 색이었는데, 그것은 가슴 풍만한 여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주피터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주웠던 유성에 이 가슴 풍만한 작은 우상을 새겨

넣었을 것인데, 하늘로부터 불처럼 왔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컴퓨터로부터 보내졌다고 선전했습니다.

아래쪽의 남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은 검은 마돈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온통 이단적인 숭배일 뿐입니다. 그것의 역사를 뒤로 가서 다시 살펴보면, 그것이 발생했던 오래전 시기에는 모든 종류의 미신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왔거나, 하늘로부터 떨어진 한 신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검은 운석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인들의 다이아나 여신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이아나신을 위해 지은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400 피트(약 120m) 이상의 길이에, 220 피트(약 67m) 이상의 넓이에, 60 피트(약 18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은 135 개의 대리석 둥근 기둥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폐허가 오늘날까지조차 지극히 인상적일 정도입니다. 지금 다이아나나 아르테미스의 숭배는 에베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스다룻을 가진 다이아나의 숭배, 아프로다이티(사랑과 미의 여신)는 모든 종류의 성적 의식에 의해 동반되었던 하나의 숭배였습니다. 여제사장들은 매춘부였는데, 성관계 행위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주변 지역은 은신처로 쓰였는데, 여러분이 만약 법에 쫓기다, 당신이 다이아나의 신전 경내에 만약 들어오면, 그들은 당신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신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신전 주변은 모든 범죄자들이나 사기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지 않고 거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다른 은세공업자들은 작은 여신들을 만드는 것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아나의 작은 은 형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데메드리오는 자기들의 사업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25 절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생업으로 재물을 얻고 있는데,”** 26 절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말하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것은 또한 그대들도 보고 들은 바라.”** 물론 바울이 신들은 사람에 의해,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 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분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신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27 절 **“그러니 우리의 이 생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고다 하였음이더라.”**

28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나”** 29 절 **“그 은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바울과 여행 중이던 사람들, 그의 여행의 동반자들을 말합니다.)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아마도 2 만여 명 이상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극장은 지금도 거기, 에베소에 있는데, 장엄합니다! 30 절 **“바울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자 하나 제자들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어떤 것도 대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 무리들을 대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이 알다시피, 자, 2 만 명 정도라면 설교하기에 아주 좋은 숫자인데!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나,

다른 제자들은, 안됩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31 절 “또 아시아의 고관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구하되 위험을 무릅 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라.” 친구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산산 조각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2 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분명 큰 동요였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시오,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입니다. 그들은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한 무리로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정말로 모르면서 말입니다.

33 절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며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꼬집어 내나라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딤후 4:14-15), 은세공업자 알렉산더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으로, 아마도 바울에 대해 우리 유대인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변명하려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들은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34 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기를 두 시간쯤이나 하더니,” 35 절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마침내, 두 시간의 찬가를 부른 후에 그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이 사람은 주변이 좋은 정치인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에게 그것을 넘겨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외교관입니다. 그는 일들을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는,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주피터,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도 이 작은 풍만한 가슴의 우상 속에 새겨졌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운석입니다. 36 절 “이 일은 반론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가 마땅히 잠잠하고 무엇이든 경솔히 행하지 말지니라.” 37 절 “이는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여기로 끌고 왔음이니,” 그들은 저주하며 돌아다니지 않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복음을 선포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어두움을 배척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실수를 하는데, 어두움을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어두움을 배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싸우는 것은, 어두움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인가요? 오직 빛을 밝히시라! 빛은 어두움을 사방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될 때, 더 이상 문제에 관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신들의 여신들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8 절 “그러므로 만일 테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 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서로 고소할 것이요,” 39 절 “만일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문의할 것이 있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것으로 소요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시다. 40 절 “이는 아무 이유도 없는 이 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소동이었던다면 로마 정부가 관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속박되지 않은 자유 도시였기에, 만약 거기에서 대소동과 폭동이 있었다면, 로마가 부여한 자유 도시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서기는 사람들에게 이 불법적인 집회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잃을 염려가 대단히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의 대소동 때문에 불러갈 위험에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불러가 심문 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모임에 관하여 해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시오, 결국 그들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놓인 가장 큰 위험은 어디라고 상상합니까?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로부터 인가요?, 혹은 정부 관리들에 의한 보호로부터 인가요?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는 항상 번영했었을 때라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교회가 정부로부터 보호되면, 그것은 약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겪었을 때, 성장했고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포옹을 당하면 교회는 약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교회들을 언급하셨을 때,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첫 사랑을 떠난 것이라고 하시며, 그러므로 회개하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돌아서 처음 행위를 하라, 혹 그렇지 아니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교회로 표현되는 일곱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일곱 금 등잔대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분은 그 한 가운데에 거니십니다.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 처음 일을 하지 아니면, 첫 사랑으로 돌아오지 아니면, 내가 그 장소에서 등잔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임재를 교회에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오늘날에도 에베소에 가면, 한 때 위대했던 도시의 폐허를 봅니다. 가까이에 작은 모슬렘의 마을은 있지만, 오늘날 에베소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등잔대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장소에서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강렬하기를 원하시며, 계속 강렬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첫 사랑은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님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사랑, 그 강렬함, 그 흥분, 퍼지고 있는 복음! 그러나 점차적으로, 첫 번째의 세기가 채 끝나기 전에, 이 다른 힘들이 안으로 살며시 들어와, 교회는 생명력을, 사랑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거기에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위한 열렬함과 사랑과 흥분이어야 합니다. 그 불꽃이 약해지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항상 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유대에,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땅 끝까지 도달하려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 당신의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능력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에 당신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역에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특별한 방법들로 그 분의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알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위에 있어,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도구로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